

全國優秀發明品 展示會의 뿌리

“ 이 글은
特許廳이 발간한
韓國特許制度史 중
發明獎勵施策(필자
鄭亮聖)의 일부이다.”

現在 施行하고 있는 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의 前身은 發明品展示會로서, 1953년에 第1回 發明品展示會가 開催되었다. 第1回 展示會는 1953年 4月 17日부터 4月 21日까지 釜山市 南浦洞 國際俱樂部에서 大韓發明獎勵會의 主催로 열렸으며, 商工部 特許局, 大韓商工會議所, 大韓技術總協會, 韓國辨理士會가 後援으로 참여하였다. 第1回 展示會의 취지를 特許年報에서 記錄하고 있는 것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人類文化는 곧 科學의 歷史이며, 科學의 成果는 또한 發明의 蓄積이다. 이와같이 人類의 實生活에 또한 産業發展에 寄與하였음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오늘날 우리 韓國에도 天才發明家들이 苦心焦慮하여 이루어진 優秀한 發明의 數는 最近 商工部 特許局에 出願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實로 2千餘件에 達하며 또, 아직 出願되지 아니한 發明도 相當히 많으리라 생각되는 바이나 一般的으로는 아직 發明思想이 涵養되지 못하고 또는 發明을 等閑視하는 傾向에 있음은 遺憾之事이다. 더욱이 現在 苛酷한 戰爭을 遂行하고 있는 大韓民國은 좀더 發明意慾을 鼓吹하고 創意와 考案을 積極 發揚함으로써 戰爭完遂와 아울러 産業建設에 이바지하여야 함으로 發明思想昂揚의 一方途로서 發明品展示會를 開催한 것이다.”

第1回 發明品展示會의 發明考案品은 約 200種이며, 優良發明考案品으로 入賞한 내역을 살펴보면 優良賞 11점, 特別賞 7점, 努力賞 11점으로 總 29점이다.

第2回 發明品展示會는 1956年 12月 27日 부터 1957年 2月 15日까지 中央商工獎勵館 4層에서 韓國發明協會가 主催로 開催되었는데, 商工部 特許局, 大韓商工會議所, 韓國辨理士會가 後援으로 참여하였다.

中央 商工獎勵館 開館을 期하여 國民의 發明創意力を 積極 昂揚하고 特許品の 實用化를 國家的으로 獎勵함으로써 戰後 産業復興에 寄與하기 위한 취지에서 開催하였다. 展示品の 內容으로는 發明考案品 169點(發明41, 實用83, 其他45)이며, 學生發明考案品 19點이 展示되었다.

優良發明考案品으로 受賞한 내역으로는 獎勵賞 41점, 大統領賞 1점, 副統領賞 1점, 大法院長賞 1점, 民議院議長賞 1점, 商工部長官賞 13점으로 總 58점에 달하였다.

第3回 發明品展示會는 1957年 9月 15日부터 10月 15日까지 德壽宮에서 大韓技術總協會의 主催로 開催되었으며, 商工部 特許局과 韓國發明協會가 後援으로 참여하였다. 國民發明思想과 發明考案品の 企業化 促進으로 發明事業을 獎勵하고 科學技術의 普及向上을 期하기 위하여 第1回 産業技術展覽會 第1

0會館인 發明館에 出品하기 위한 취지로 開催된 이 展示會에 出品된 內容은 特許品 70點으로, 優良發明考案品으로 受賞한 내역을 살펴보면 商工部長官賞이 8점, 特許局長賞이 9점으로 第2回 展示會보다는 賞의 種類 및 數가 대폭 줄어들었다.

第4回 發明品展示會는 1958年 5月 15日부터 6月 3日까지 和信百貨店 3, 4層에서 韓國發明協會의 主催로 開催되었으며, 商工部 特許局이 後援으로 참여하였다. 이 展示會의 趣旨로는 5月 19日 第2回「發明의 날」行事의 一部로서 國民의 發明思想昂揚과 發明考案品の 企業化를 促進하여 發明事業을 獎勵하고 科學技術의 普及向上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展示品의 內容으로는 發明考案品, 試作員上品等 129點이며, 優良發明考案品으로 選定된 發明品

의 受賞내역으로는 大統領賞이 4점, 商工部長官賞이 15점이었다.

第5回 發明品展示會는 1959年 5月 16日부터 5月 25日까지 中央商工獎勵館 4層에서 韓國發明協會의 主催로 열렸으며, 商工部特許局이 후원으로 참여하였다.

이 展示會는 第3回「發明의 날」行事의 一部로서 國民의 發明意慾을 一層鼓吹하여 科學技術의 發展向上을 도모하기 위하여 開催되었으며, 展示品의 內容을 보면 機械9件, 化學12件, 農機具6件, 電氣6件, 雜機具6件, 其他28件計67件에 100點이 出品되었다. 出品된 發明品중 10점이 商工部長官賞을 受賞하였다.

以上에서 언급한 發明品展示會는 1960年 이후에도 開催되었는지는 資料의 미비로 인하여 알 수가 없어 안타깝게 생각되며, 現在 施行中인

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는 1982年度부터 始作되었다.

이 展示會가 시작된 배경은 1981年 9月 大統領指示事項에 대한 檢討報告時 大統領의 재가를 얻은 것을 근거로 하여 1982年부터 關聯豫算을 確保하여 施行하게 된 것이다. 이 展示會도 發明品展示會와 같이 國內의 發明品 中에서 優秀發明品을 選別·展示하여 포상하고, 各種 補償金을 支給함으로써 發明人의 發明意慾 高취와 發明分圍氣를 擴散시키기 위한 것이다.

1년 앞선 특허관리 10년 앞선 선진기업

소득은 정당하게 소비는 알뜰하게

〈23p에서 계속〉

수 있는 洪範 14條의 제11조에 「國中에 총명한 자제로 멀리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예를 견습케 하는 안」이라고 규정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903年 1月 16日에는 서울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技術者大會를 열고 우수한 것을 선정하여 布木 등으로 시상하고 特許權도 부여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後 乙巳保護條約이 체결된 1905年 뒤인 1907年 12月 13日의 農商工部の 官制에 보면 商工局 밑에 「商

標와 意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는 규정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부터 本格的인 日本의 식민통치행위가 시작된 것을 빌미로 결국 3年 뒤인 1908年에 韓國에 日本의 特許制度를 임의대로 施行했던 것입니다.

생각컨대 이미 西紀 700年代에는 우리 先祖들이 文化뿐 아니라 技術까지도 日本에 傳受했다는 것이 日本의 “工業所有權制度 100年史”의 앞장에 明記했음을 상기할 때 1800年代에 와서 바꾸어 日本에서

技術을 받아들이고 끝내는 식민지배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된 것을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맨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그 치욕의 歷史를 反省과 奮發로 다시 700年代의 榮光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歷史를 만들어가는 이 時代人들의 생각할 바라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韓國의 特許制度가 날로 發展되고 있음을 바로 恥辱은 榮光으로 바뀌나가는 過程이라는 自負心을 갖게하여 흐름함을 禁할 수가 없습니다. <♣>